

수영복 디자인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 정 미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A Study on the Visual Image of Swimsuit Design

Kim Jeongmee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yle of swimsuits shown in collections from 2007 to 2010 and to extract main expressional words for the development of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of visual imag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tyle of swimsu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1171 swimsuits shown in collections were composed of 569 bikini, 400 one piece and 202 monokini swimsuits. 2) The design typ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houlder strap of the one piece swimsuits are ranked in the order of 300 two straps, 59 strapless and 41 one strap. The bikini swimsuits are ranked in the order of 444 two straps, 116 strapless and 9 one strap. And the monokini swimsuits are ranked in the order of 161 two straps, 23 one strap and 18 strapless. 3) Main expressional words of visual images for swimsuits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style of swimsuit. The visual images for one piece swimsuits are ranked in the order of 'stuffy', 'making shoulders look wide', 'simple', 'plain', 'neat', 'basic', 'making legs look long', 'boring' and 'dull'. The visual images for bikini swimsuits are ranked in the order of 'hot', 'underwear-like' · 'refreshing', 'making legs look long', 'gaudy', 'basic', 'looking slim', 'cute', 'plain'. The visual images for monokini swimsuits are ranked in the order of 'gaudy', 'hot', 'underwear-like', 'making legs look long', 'embarrassed' · 'scanty' · 'looking slim', 'awkward', 'making waist look slim'.

Key Words : Expressional word(표현용어), Style(스타일), Swimsuit(수영복)

1. 서론

현대 수영복은 스포츠와 레저 활동은 물론이고 미와 매력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기능성뿐만 아니라 장식성을 강조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수영복에서는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해져 아웃웨어와 유사한 디자인도 등장하고 있어, 이제 수영복은 바다와 수영장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착용하는 특별한 의상이 아니라 하나의 패션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 셀린느(Celine), 샤넬(Chanel),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 디엔지(D&G), 디케이앤와이(DKNY),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엠마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 옴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펜디(Fendi), 피지코(Fisico), 구찌(Gucci), 에르메스(Hermès),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저스트 카발리(Just Cavalli), 겐조(Kenzo), 루이 뷔통(Louis Vuitton),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미스 비키니(Miss bikini), 모스키노 칩 앤 시크(Moschino Cheap & Chic), 로사 차(Rosa Cha), 셰이 토드(Shay Todd),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 스틸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 베르사체(Versace) 등 수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조형의지가 맘껏 표출된 여성 수영복을 컬렉션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과감한 커팅이나 실루엣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등 저마다 그 방식은 다르지만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수영복 디자인의 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여성 수영복에 관한 선행연구들¹⁾을 살펴보면, 국내·외 수영복의 변천과정, 성인 여성의 수영복 구매행동 및 디자인 선호도, 체형에 따른 수영복 디자인, 수영복에 나타난 문양, 수영복의 미적 특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20세기 수영복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장 근래의 수영복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수영복 시장과 다양

하게 변화되고 있는 여성 수영복 디자인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연구자는 최근 다양한 스타일로 등장하고 있는 여성 수영복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복의 시각적 이미지와 효과를 파악하여 여성 수영복 구성 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대 수영복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현대 여성의 다양한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영복 디자인을 위한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연구 방법은 복식미학과 복식사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패션사이트 패션워치닷컴(www.fashionwatch.com)에서 최근 4년 동안의 여성 수영복 사진을 통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그래픽스 디자이너 9.0(Micrografx Designer 9.0)을 사용하여 자극물을 제작하고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된 용어 중 시각적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20쌍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 적합성 여부를 실험한 후, 항목들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7단계 평점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성 수영복 구성 평가의 전 단계로서, 수영복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수영복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스타일에 따른 수영복의 표현용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영복 구성 조건의 적정성 평가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성 수영복의 변화를 이해하고,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수영복의 스타일을 분석한다.

둘째, 수영복의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 용어를 추출한다.

II. 연구 방법 및 내용

1. 수영복의 변화 및 스타일 분석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 연구로는 수영복과 관련된 서적, 논문과 기사자료를 통해 수영복의 개념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성 수영복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사례 연구로는 먼저, 패션사이트 패션워치닷컴(www.fashionwatch.com)에서 ‘스위밍 코스츨(swimming costume)’, ‘스웜수트(swimsuit)’, ‘스웜웨어(swimwear)’의 용어로 검색하여 수집된 자료 중 최근 4년 간 여성 수영복 사진 즉, 2007년 208점, 2008년 225점, 2009년 338점, 2010년 400점, 총 1171점을 선정하여 수영복 스타일을 분석한다.

2. 수영복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용어 추출

1) 디자인 선정

패션사이트 패션워치닷컴에서 수집한 1171점의 사진들을 통해 수영복은 <표 1>과 같이 크게 원피스, 비키니, 모노키니의 3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원피스 스타일은 2007년 80점, 2008년 63점, 2009년 125점, 2010년 132점으로 총 400점이 나타났다. 비키니 스타일은 2007년 98점, 2008년 132점, 2009년 157점, 2010년 182점으로 총 569점이 나타났다. 또한 모노키니 스타일은 2007년 30점, 2008년 30점, 2009년 56점, 2010년 86점으로 총 202점이 나타났다.

2) 자극물제작

실제 실험을 위한 자극물은 마네킹에 수영복을 착용시킨 것으로, 이는 신체적 특징의 효과를 나타내는 평가용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극물은 마이크로그래픽스 디자이너 9.0(Micrografx Designer 9.0)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색상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의복 자극물의 수영복은 흰색을 사용하였으며, 마네킹은 의복자극물과는 다른 색상이면서 피부와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1>과 같다.

3)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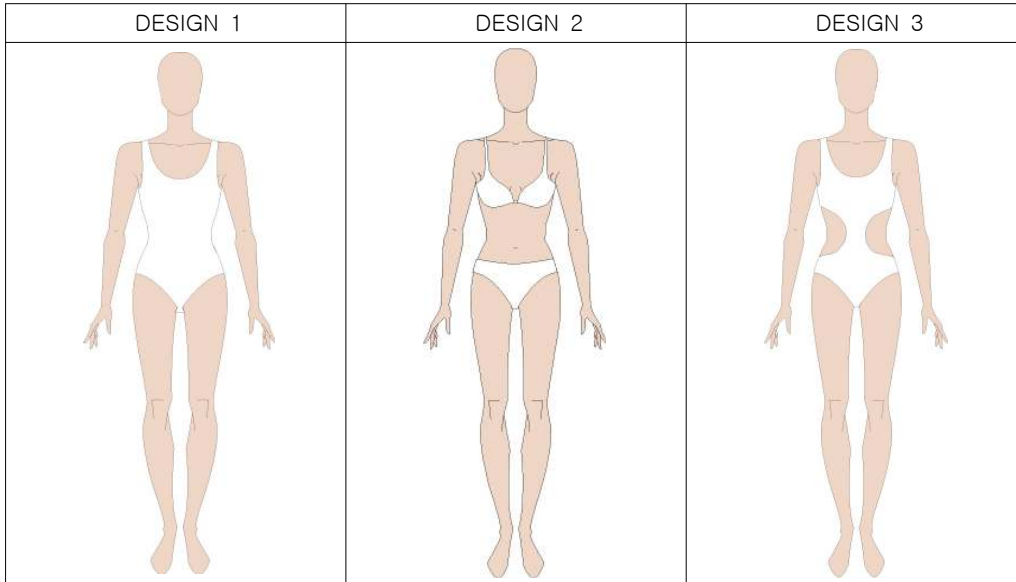
본 연구의 평가자로는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의복 평가에 있어서 비전공자들 보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 평가는 2010년 6월 7일 ~ 6월 21일 동안 6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극물을 1개씩 제시하면서 이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5개 이상 자유기술토록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영복의 디자인 변화에 따른 표현용어 차이를 알아보고자 수집된 시각적 이미지의 형용사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의미가 유사한 형용사는 가능한 제외시켰다. 이때 빈도수가 10 이상인 주요표현용어의 비율분포로부터 각 변인 즉,

<표 1>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영복 스타일

스타일 연도	원피스	비키니	모노키니	합계
2007	80	98	30	208
2008	63	132	30	225
2009	125	157	56	338
2010	132	182	86	400
합계	400	569	202	1171



<그림 1> 자극물의 분류

스타일에 따른 표현용어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수영복의 역사적 고찰

여성 수영복에 관한 최초의 문헌은 기원전 350년경 그리스에서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³⁾ 3~4세기경 시실리의 피아짜 아르메리니 저택(Piazza Armerini villa, Sicily)의 모자이크(mosaics)<그림 2-1>⁴⁾에는 현대의 비키니(bikini)와 유사한 형태인 스트로피움(stropium) 혹은 마밀라레(mamillare)라 불리는 가슴밴드(breast-band)와 몸에 꼭 맞는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18세기에 수영은 상류층에서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는데,⁵⁾ 영국의 조지 3세(George III, ~)는 수영복으로 왕의 상징인 문장이 있는 보닛을 머리에 쓰고 플란넬 울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귀족층 여성들은 중후한 실크나 울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⁶⁾

19세기가 되면서 수영은 비로소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어 평상복이 아닌 기능적인 수영복이 등장하게 되었다. 1830년경 여성들은 수영복으로 길고 헐렁한 원피스 드레스를 착용하다가 1860년대 이르러서는 블루머(bloomer)를 입게 된 것이다. 그리고 1870년대에는 플란넬의 짧은 소매의 재킷과 무릎 밑에서 묶는 드래워즈(drawers), 캡, 캔버스 구두가 기본적인 옷차림이 되었는데, 세일러 칼라의 튜닉과 헐렁한 블라우스 등, 다양한 바リエ이션이 여성잡지에 등장했다.⁷⁾ 1880년대 튜닉형의 드레스는 길이가 엉덩이 길이로 짧아지고, 소매는 거의 사라져 블라우스 형태가 되었는데, 여기에 니커보커형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1890년대는 바지로 된 원피스 스타일이 새로이 등장하였는데, 바지는 무릎 정도의 길이에 네 크라이인이 깊게 파인 형태로, 이때부터 원피스 수영복의 기본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림 2-2>⁸⁾.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수영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이제 수영복은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당시의 수영복은 주로 무채색에 실크로 만들어진 스커트, 블루머, 슬리브리스 형태였

다⁹⁾. 이러한 수영복은 1920년대에 와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짧은 바지로 된 원피스 스타일, 니트 직물의 끈 없는 원피스 스타일인 마이요(maillot), 그리고 쇼츠와 긴 탐으로 된 심플한 투피스 스타일 등 <그림 2-3>¹⁰⁾이었다. 이러한 수영복에는 밝은 색상과 가벼운 저어지가 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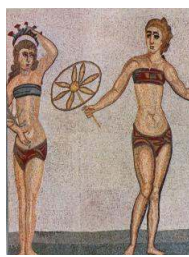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경제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로 수영복은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오버스커트는 점차 사라졌으며 암홀과 데콜테는 더욱 커지면서 노출이 심해지다가 1933년 처음으로 등이 노출된 홀터 넥 스타일이 등장하였다.¹¹⁾ 이 때 수영복의 소재로는 주로 니트, 테리직, 울과 같은 면 등이 사용되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은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찍었으며, 미인 콘테스트에서도 수영복은 필수 옷차림이 되는 등 이제 수영복은 특별한 의상이 되었다. 이러한 수영복은 사이즈가 극단적으로 작았으며, 언더부분에 와이어를 넣고 바스트에는 무언가로 채우는 등 색시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¹²⁾

194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원단 제한으로, 수영복은 실크나 울 대신 면이나 마 등 뽀뽀한 소재를 사용하여 다소 불편해졌으나, 전쟁 이후에는 밝은 색상의 프린트가 있는 레이온과 저어지류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 때 주목할 만한 사건은 브라와 쇼츠로 구성된 진정한 비키니의 등장으로, 46년 루이스 리드(Louis Reard)는 이 수영복의

이름을 미국의 핵실험이 행해진 남태평양의 비키니 산호섬에서 따왔는데, 비키니는 프랑스와 미국해변에서 유행을 일으켰다<그림 2-4>.¹³⁾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인 다이아나 브리랜드(Diana Vreeland)는 이 비키니를 ‘핵폭탄 이후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고 불렀다.¹⁴⁾

1950년대 수영복은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어 비구조적이며 주름이 많이 잡힌 풍성한 스타일이 유행하다가, 1958년 듀퐁(DuPont)에서 라이크라(Lycra)를 개발하면서 수영복은 점차 몸에 밀착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원피스 수영복은 선뎌를 하기 위한 어깨끈이 없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여전히 비키니 착용은 비도덕적이란 인식이 남아 있었다.¹⁵⁾

1960년대에는 미니멀리즘, 성 개방이나 여성해방 운동 등 사회 문화적 변혁의 시기를 맞아 여성들의 수영복은 노출부위를 확대하고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키니는 쇼츠와 반두(bandeau)형태로 6,70년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는데, 소재는 나일론에서부터 코듀로이, 데이크론, 포폴린, 코튼 트웰, 아세테이트 등 다양해졌으며, 동물무늬와 대담한 기하학적 무늬가 유행하였다. 특히 1967년 루디건릭(Rudi Gernreich)은 톱리스(topless) 수영복을 발표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그림 2-5>.¹⁶⁾



<그림 2-1>
AD. 3-4C 수영복
-20,000 Years of Fashion, p.122.



<그림 2-2>
1895년 수영복
-20,000 Years of Fashion, p.387.



<그림 2-3>
1922년 수영복 광고
-복식의 아이템, p.353.



<그림 2-4>
1946년 비키니
-Fashion of a decade: The 1940s, p.19.



<그림 2-5>
1967년 톱리스
-Icons of Fashion, p.92.

<그림 2> 21세기 이전의 여성 수영복

1970년대 수영복은 성적 매력을 더욱 강조하게 되어 홀터 넥 탑에 탕가(Tanga)라 불리는 스트링(String) 비키니가 등장하였다. 소재로는 주로 면, 크레이프, 저어지, 라이크라, 광택소재 등이 사용되었다. 수영복에 있어서 노출경향은 점차 심화되어 1980년대에는 마이크로 비키니가 등장하였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는 복고풍이 유행하면서 에콜로지 룩, 에스닉 룩 등의 수영복이 등장하여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2.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수영복 스타일

1) 원피스 스타일(One piece style)

원피스 스타일은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이루어진 형태의 수영복을 말하는데, 2007년 80점, 2008년 63점, 2009년 125점, 2010년 132점이 나타났다. 이 400점 사진들에서 원피스 수영복은 목둘레선(neckline)의 형태, 어깨끈(shoulder strap)의 유무와 너비 정도, 밑단(hemline)의 형태와 길이(length)에 따라 그 디자인이 달랐다.

에르메스는 2007년 컬렉션에서 가장 베이직한 스타일의 수영복을 발표하였는데, <그림 3>¹⁷⁾의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둥근 목둘레선에 양쪽 모두에 어깨끈이 있으며, 수영복의 길이는 보통 정도인데, 골드체인으로 변화를 준 어깨끈과 조화를 이루는 허리벨트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어깨끈이 두 개인 수영복은 총 300점으로, 2007년 옴포리오 아르마니, 에르메스, 줄리안 맥도널드(Julien MacDonald), 겐조, 루이 뷔통, 소니아 리키엘 등에 의해 65점, 2008년 안토니오 마라스, 쉘린느, 샤넬, 크리스찬 라크루와, 라코스테(Lacoste), 세이 토드, 소니아 리키엘 등에 의해 46점, 2009년 벤티 존슨(Betsey Johnson), 디엔지, 다니엘 스컷(Danielle Scutt), 제레미 스컷(Jeremy Scott), 저스트 카발리, 에르메스, 마이클 코어스 등에 의해 87점, 2010년 마이클 코어스, 디케이앤와이, 돌체 앤 가바나, 세이 토드 등에 의해 102점이 나타났다.

고텍스(Gottex)는 2008년 컬렉션에서 다소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그림 3-2>에서 보듯이

어깨끈은 한쪽(over the shoulder)에만 있으며 가슴부터 배 부위까지 대담하게 커팅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깨끈이 한 개인 수영복은 총 41점으로, 2007년 다니엘 스컷, 에르메스, 레오나르드(Leonard), 티비(Tibi) 등에 의해 8점, 2008년 고텍스(Gottex), 구찌, 아이스버그(Iceberg), 프린(Preen), 세이 토드 등에 의해 12점, 2009년 옴포리오 아르마니, 장 폴 콜티에, 저스트 카발리, 라 페르라(La Perla), 로사 차, 베르사체 등에 의해 10점, 2010년 디스퀘어드(DSquared), 옴포리오 아르마니, 피지코, 마이클 코어스, 미스 비키니(Miss Bikini), 티비 등에 의해 11점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깨끈이 아예 없는(strapless) 원피스 수영복은 총 59점으로, 2007년 고텍스, 레오나르드, 로사 차 등에 의해 7점, 2008년 아이그너(Aigner), 로사 차 등에 의해 5점, 2009년 에밀리오 푸치, 옴포리오 아르마니, 샤넬, 디스퀘어드, 후세인 살라만, 아이스버그, 스텔라 맥카트니 등에 의해 28점, 2010년 옴포리오 아르마니, 고텍스, 구찌, 라코스테, 티비 등에 의해 19점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피스 스타일에서는 수영복의 길이에 큰 변화를 준 디자인도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2007년 샤넬, 펜디, 에르메스, 겐조, 루이 뷔통, 2008년 쉘린느, 디케이앤와이, 라코스테, 마이클 코어스, 2009년 벤티 존슨, 디엔지, 에밀리오 푸치, 옴포리오 아르마니, 에르메스, 아이스버그, 라 페르라, 루이 뷔통, 마이클 코어스 등은 다소 긴 길이의 수영복을 발표하여 1950년대 패션스타일을 연상시키기도 하였다.

2) 비키니 스타일(Bikini style)

비키니 스타일은 상의와 하의로 분리된 형태의 수영복을 말하는데, 2007년 98점, 2008년 132점, 2009년 157점, 2010년 182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569점 사진들을 통해 비키니 수영복은 크게 어깨끈과 수영복의 길이에 따라 스타일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었다.

먼저, 비키니 스타일에서 어깨끈이 두 개 모두 있는 수영복은 총 444점으로, 2007년 보르보네세(Borbonese), 카샤렐(Cacharel), 피지코, 고텍스, 겐

조, 마로(Malo), 핀 업 스타즈(Pin Up Stars), 로사 차, 스텔라 맥카트니 등에 의해 84점, 2008년 야구 아 벤디타(Agua Bendita), 안젤로 마라니, 아르모니아(Armonia), 고텍스, 존 갈리아노, 라 페르라, 핀 업 스타즈, 세이 토드 등에 의해 102점, 2009년 벳시 존슨, 쿠스토, 디 앤 지, 돌체 앤 가바나, 피지코, 마이클 코어스, 로사 차, 루피아(Rufia) 등에 의해 119점, 2010년 블루걸, 돌체 앤 가바나, 옴포르리오 아르마니, 펜디, 크리지아, 모스키노 칩 앤 시크, 세이 토드 등에 의해 139점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깨끈이 한 개인 수영복은 총 9점으로, 2007년 시아 마리티마(Cia Maritima)에 의해 2점, 2008년 재큐린 러브(Jacqueline Love), 로사 차 에 의해 3점, 2009년 앤 소피 백(Ann Sophie Back) 등에 의해 3점, 2010년 고텍스에 의해 1점이 나타났다.

옴포르리오 아르마니는 2010년 컬렉션에서 어깨끈이 아예 없는 비키니 수영복을 발표하였는데,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의는 어깨끈이 없는 브라 형태이며, 하의는 허리선이 다소 내려간 보이 컷(boy cut) 형태이다. 이와 같이 어깨끈이 없는 수영복은 총 116으로, 2007년 에밀리오 푸치, 고텍스, 이사(Issa), 미스 비키니, 니콜 밀러(Nicole Miller), 로사 차 등에 의해 12점, 2008년 아르모니아, 벳시 존슨, 시아 마리티마, 헬로우 키티(Hello Kitty), 마이클 코어스, 니콜라이(Nicholai), 세이 토드 등에 의해 27점, 2009년 앵크(Ank), 비블로스, 셀린느, 디젤, 파티마 로페즈(Fatima Lopez), 고텍스, 로베르타 스카르파, 로사 차, 비비안 웨스트우드, 빅스 등에 의해 35점, 2010년 에드 하르디(Ed Hardy), 옴포르리오 아르마니, 고텍스, 라이크라, 미스 비키니, 핀 업 스타즈, 포코 파노, 세이 토드 등에 의해 42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 피지코, 고텍스, 겐조, 라 페르라, 니콜 밀러, 로사 차, 스텔라 맥카트니, 2008년 야구 아 벤디타, 벳시 존슨, 존 갈리아노, 라 페르라, 니콜라이, 트레이시 리제(Tracy Reese), 2009년 벳시 존슨, 셀린느, 디 앤 지, 피지코, 돌체 앤 가바나, 마이클 코어스, 로사 차, 루피아,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0년 에드 하르디, 옴포르리오 아르마니, 돌체 앤 가바나, 펜디, 크리지아, 모스키노 칩 앤 시크,

핀 업 스타즈 등은 쇼트 팬츠(short pants) 형태의 비키니 수영복을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비키니 수영복은 목 뒤로 묶는 형태의 홀터키니(halterkini), 비키니와 탱크 탑(tank-top)의 중간 형태인 탱키니(tankini), 옆에 링이나 버클 등으로 장식하거나 끈 등으로 묶는 사이드(tie side bikini) 비키니, 아주 작은 형태의 잇시 빗시(itsy bitsy) 등 상의와 하의의 디자인에 따라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 모노키니 스타일(Monokini style)

모노키니 스타일은 원피스와 같이 한 벌 형태로 되어 있지만, 허리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냄으로써 비키니처럼 노출이 심한 형태의 수영복을 일컫는다. 이러한 스타일은 원피스 스타일과 비키니 스타일이 절충된 것으로, 1967년 루디건릭에 의해 처음 등장했는데, 그는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는 톱리스(topless) 형태의 수영복을 발표해 당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반해 최근 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노키니는 톱리스의 형태는 아니지만 배나 허리부위에 과감하게 커팅함으로써 톱리스 못지않은 대담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노키니 스타일은 2007년 30점, 2008년 30점, 2009년 56점, 2010년 86점으로 총 202점이 나타났다. 이 사진들에서 모노키니 수영복은 어깨끈의 유무와 길이 정도에 따라 그 실루엣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이 토드는 2009년 컬렉션에서 모노키니 수영복을 발표하였는데,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쪽 모두에 어깨끈이 있으며, 수영복의 길이는 다소 긴 듯하지만, 양쪽 허리부위의 커팅과 골드 링의 매치는 대담함과 섹시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어깨끈이 두 개인 수영복은 총 161점으로, 2007년 임마누엘 웅가로, 피지코, 저스트 카발리, 미스 비키니, 모스키노 칩 앤 시크, 로사 차 등에 의해 27점, 2008년 레오니자(Leonisa), 로베르타 스카르파(Roberta Scarpa) 등에 의해 23점, 2009년 피지코, 포코 파노(Poko Pano), 세이 토드 등에 의해 46점, 2010년 블루걸, 피지코, 고텍스, 엘 스페이스(L Space), 미스 비키니, 세이 토드 등에 의해 65점이 나타났다.

로사 차는 08년 컬렉션에서 짙은 네이비 블루 (navy blue)의 다소 파격적인 모노키니 수영복을 선보였는데, 어깨끈은 한쪽에만 있으며 양쪽 허리 부위는 대담하게 잘려져 나갔다. 이와 같이 어깨끈이 한 개인 수영복은 총 23으로, 2008년 쿠스토와 로사 차에 의해 2점, 2009년 엠포리오 아르마니, 피지코, 자스트 카발리, 라 페라라, 빅스 등에 의해 7점, 2010년 피지코, 라이크라, 마이클 코어스, 미스 비키니, 레드 카르터(Red Carter), 티비 등에 의해 14점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깨끈이 아예 없는 모노키니 수영복은 총 18점으로, 2007년 엠포리오 아르마니, 고크스에 의해 3점, 2008년 안젤로 마라니, 파티마 로페즈, 레오니자 등에 의해 5점, 2009년 비블로스, 셸린느, 로사 차에 의해 3점, 2010년 디스퀘어드, 에밀리오 푸치, 프란키 모렐로(Frankie Morello), 고크스, 구찌 등에 의해 7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디자인에서는 어깨끈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영복의 길이에 있어서도 하이 컷에서 레귤러 컷, 로우 컷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수영복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용어 추출

1) 원피스 스타일에서 나타난 주요 표현용어

원피스 수영복의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형용사를

자유기술토록 하여 51개의 형용사와 신체관련 이미지 23개로 74개의 단어가 조사되었다. 이 74개의 단어 중 총 빈도수가 5 이상인 20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 가운데 각 용어별 빈도수가 10 이상인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표 2>에서 20개의 용어 중 ‘뚱뚱해 보이는’, ‘어깨가 넓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슴이 작아 보이는’의 5개 용어는 신체 관련 이미지이고 나머지 15개의 용어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용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빈도수 10 이상의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그림 4>에서 원피스 수영복의 이미지 중 가장 많은 것은 ‘답답한’의 이미지였고, 그 다음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심플한’, ‘평범한’, ‘깔끔한’, ‘기본적인’, ‘다리가 길어 보이는’, ‘재미없는’, ‘맛잇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비키니 스타일에서 나타난 주요 표현용어

비키니 수영복의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형용사를 자유기술토록 하여 53개의 형용사와 신체관련 이미지 20개로 73개의 단어가 조사되었다. 이 73개의 단어 중 총 빈도수가 5 이상인 19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 가운데 각 용어별 빈도수가 10 이상인 용어를 대상으



<그림3-1> 원피스
- Hermès, '07



<그림3-2> 원피스
- Gottex, '08



<그림3-3> 비키니
- Emporio Armani, '10



<그림3-4> 모노키니
- Shay Todd, '09

<그림 3> 여성 수영복 스타일

- <http://www.fashionwatch.com>, Swimwear Spectacular S/S 07, 08, 09, 10

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표 2>에서 19개의 용어 중 ‘어깨가 넓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슴이 커 보이는’, ‘몸매가 드러나는’의 5개 용어는 신체 관련 이미지이고 나머지 14개의 용어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용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빈도수 10 이상의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그림 4>에서 비키니 수영복의 이미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섹시한’의 이미지였고, 그 다음으로 ‘속옷 같은’, ‘시원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야한’, ‘기본적인’, ‘날씬해 보이는’, ‘귀여운’, ‘평범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 모노키니 스타일에서 나타난 주요 표현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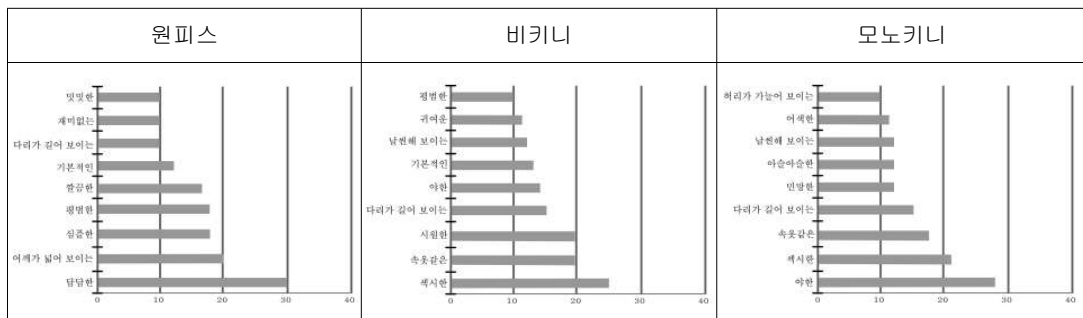
모노키니 수영복의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형용사를 자유기술도록 하여 47개의 형용사와 신체관련 이

미지 23개로 70개의 단어가 조사되었다. 이 70개의 단어 중 총 빈도수가 5 이상인 22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 가운데 각 용어별 빈도수가 10 이상인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표 2>에서 22개의 용어 중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허리가 길어 보이는’, ‘골반이 넓어 보이는’의 5개 용어는 신체 관련 이미지이고 나머지 17개의 용어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용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빈도수 10 이상의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그림 4>에서 모노키니 수영복의 이미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야한’의 이미지였고, 그 다음으로 ‘섹시한’, ‘속옷 같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민망한’, ‘아슬아슬한’, ‘날씬해 보이는’, ‘어색한’,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 자극물의 주요 표현용어

자극물	표현용어
원피스	평범한, 기본적인, 심플한, 깔끔한, 깨끗한, 단순한, 심심한, 맛있는, 답답한, 재미없는, 촌스러운, 유행에 뒤떨어지는, 보수적인, 나이 들어 보이는, 시원한, 뚱뚱해 보이는, 어깨가 넓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슴이 작아 보이는
비키니	대중적인, 기본적인, 일반적인, 단순한, 평범한, 귀여운, 예쁜, 섹시한, 야한, 속옷 같은, 민망한, 입고 싶은, 불안한, 시원한, 어깨가 넓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슴이 커 보이는, 몸매가 드러나는
모노키니	야한, 퇴폐적인, 속옷 같은, 민망한, 아슬아슬한, 불안한, 섹시한, 글래머러스한, 혁신적인, 불편한, 부담스러운, 개성있는, 특이한, 시원한, 어색한, 이상한, 입고 싶지 않은,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허리가 길어 보이는, 골반이 넓어 보이는



<그림 4> 자극물의 주요 표현 용어별 빈도

IV.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수영복의 구성 조건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영복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수영복 스타일을 분석하고, 스타일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분석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용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수영은 18세기까지는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면서 수영복은 일상복과 유사한 형태였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수영이 점차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 위한 레저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활동에 편한 기능적인 측면을 추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수영복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 개방, 신소재와 신기술 등의 영향으로 성적 매력이 강조되었으며,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룩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거친 지금의 여성 수영복은 수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조형의지가 표현된 수영복을 발표하면서 개개인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수영복 1171점을 스타일별로 분류한 결과, 비키니 스타일 569점, 원피스 스타일 400점, 모노키니 스타일 202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스타일에서는 어깨끈의 유무에 따라 디자인 유형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원피스 스타일에서는 어깨끈이 두 개인 타입 300점, 어깨끈이 없는 타입 59점, 어깨끈이 한 개인 타입 41점 순으로, 비키니 스타일에서는 어깨끈이 두 개인 타입 444점, 어깨끈이 없는 타입 116점, 어깨끈이 한 개인 타입 9점 순으로, 모노키니 스타일에서는 어깨끈이 두 개인 타입 161점, 어깨끈이 한 개인 타입 23점, 어깨끈이 없는 타입 1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영복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용어를 추출한 결과, 원피스 수영복의 이미지는 ‘답답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심플한’, ‘평범한’, ‘깔끔한’, ‘기본적인’, ‘다리가 길어 보이는’, ‘재미없는’, ‘맛잇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키니 수영복의 이미지는 ‘섹시한’의 이미지였고, 그 다음으로 ‘속옷 같

은’ · ‘시원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야한’, ‘기본적인’, ‘날씬해 보이는’, ‘귀여운’, ‘평범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노키니 수영복의 이미지는 ‘야한’의 이미지였고, 그 다음으로 ‘섹시한’, ‘속옷 같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민망한’ · ‘아슬아슬한’ · ‘날씬해 보이는’, ‘어색한’,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영복의 변화와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여성 수영복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 개방, 신소재, 신기술 등과 같은 여러 사회 ·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디자인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영복의 시각적 이미지는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스타일은 그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가 각기 달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깨 끈과 길이 등과 같은 수영복 스타일의 여러 변화 요인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 변인간의 상호 영향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수영복 구성 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김혜경, 조은경, 최형빈(2004), “한국 여자 수영복 디자인의 변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5), pp.558-564., 박신애(2003), “한국 수영복 디자인의 변천에 관한 연구: 개화기이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주(1983), “수영복의 변천과정과 육체노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아(1998), “성인여성의 수영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삼호, 임병리(2002), *성인여성의 수영복 디자인 선호조사 연구 : 연령, 직업에 따른 조사, 생활과학논집* 15(-), pp.113-136., 김유식(1985), “체형에 따른 수영복 디자인 연구 : 레저웨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심강희(1992), “여자 수영복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혜경(2003), “전환기 여성 수영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기묘(2002), “전신 수영복의 prototype 제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예영(2006), 비키니 수영복에 관한 연구, *복식 56(7S)*, pp.142-151., 유영선(1984), “경기용 수영복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진희(1998), “경기용 여자 수영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감성 과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희, 김민자(2003),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1)”, *복식, 53(2)*, pp.35-55., 최경희, 김민자(2003),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2)”, *복식, 53(4)*, pp.49-69.
- 2) 이경희(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민자, 최경희 (2003), op.cit., p.37.
 - 4) Boucher, F.(1987).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122.
 - 5) Probert, Christinas(1981), *Swimwear in vogue since 1919*, London: Thames and Hudson, p.7.
 - 6) 류혜경, op.cit., pp.4-5.
 - 7) 이경희 외(2006), *복식의 아이템*, 경춘사, pp.351-352.
 - 8) Boucher, F., op.cit., p.387.
 - 9) Carter, Ernestine(1977),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London: G. P. Putnam's Sons New York, p.223.
 - 10) 이경희 외, op.cit., p.353.
 - 11) 엄준희(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석사학위논문, p.30.
 - 12) 이경희 외, op.cit., p.353.
 - 13) Baker, Patricia.(1991), *Fashion of a decade: The 1940s*, London: B.T. Batsford Ltd., p.19.
 - 14) *현대패션100년 편찬위원회* (교문사, 2002), p.151.
 - 15) Baker, Patricia., op.cit., p.28.
 - 16) Buxbaum, Gerda(ed.)(1999), *Icon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Verlag, p.92.
 - 17) “Swimwear Spectacular Spring/Summer 2007, 2008, 2009, 2010”, *fashionwatch*, 자료검색일 2010. 01. 25 - 2010. 01. 30, 자료출처 <http://www.fashionwatch.com>

접수일(2011년 1월 5일),
수정일(1차 : 2011년 3월 4일, 2차 : 3월 31일),
게재확정일(2011년 4월 4일)